



ITU-T TAS Group 제1차 회의



▶ 박 기 식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이 병 남²⁾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회의 개요

이번 TAS 회의는 현 연구회기(2005년-2008년)의 첫 번째 회의로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교 사이버자야에서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20개 회원국 총 55여명이 참석하여 1) 향후 활동 방향과 2) 원가계산모형, IP망 관련 이슈, 국제간 인터넷 접속 등의 요금 및 접속 관련 주요 이슈 및 3) TAS 관련국들의 지역 현황에 관해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각 지역별 입장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TAS(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는 1996년 표준화총회(WTSA-1996, 제네바) 결의 제26호의 각 지역별 지역요금 그룹(TAF, TAL, TAS) 신설권고에 따라 ITU-T SG 3에 신설되었으며, 아시아, 중동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의 과금구조 및 상호정산 등을 연구·검토하는 조직으로 각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적합한 과금 모델 개발 및 ITU-T 본 회의의 안전과 관련한 지역 입장을 정립, 논의하는 표준단체이다.

표준화총회에서 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국장은 BDT(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국장과 협력하여 지역요금 그룹의 구체적 지원을 강조하고 회원국 고유의 비용산정 방법론과 관련한 전산화된 응용도구의 개발을 장려키로 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을 알리고 접속료 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공학적 비용산정 방법론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현 회기 ITU-T SG 3 의장인 박기식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과 TAS 부의장인 이병남 책임연구원 및 최선미, 김경태 연구원(이상 ETRI) 등 총 4명이 참가하여 주제발표 및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1) 현재 ITU-T SG3(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including related telecommunication economic and policy issues) Chairman(2005-2008년 회기), ASTAP Advisory Board Member.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ITU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Vice-Chairman 역임
2) 현재 ITU-T TAS(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 Vice-Chairman(2005-2008년 회기)

2. 회의 주요 내용

2.1 한국의 활동

본 회의는 요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와 회의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총 4명이 참여하였다. ITU-T SG3 의장인 박기식 단장과 TAS Group 부의장인 이병남 박사가 세미나에서 각각 아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최선미 연구원과 김정태 연구원은 회의에서 각각 기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 한국 세미나 발표 주제

- 주제 : Broadcasting and Telecom Convergence in Korea - Some economic and regulatory issues and problems to be solved(발표자 : 박기식 단장/ITU-T SG3 Chairman)
- 주제 : Korean government-driven ICT policy : IT 839 strategy(발표자 : 이병남 책임연구원/ITU-T TAS Vice Chairman)

○ 한국 제출 기고서 요약

기고서 명	문서번호	결과
Considering various Cost-Oriented Models for TAS Cost Model Enhancement	GR TAS-D1-E	○ TAS Cost Model에 LRIC 방식을 추가하지는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관련 정보교류가 Cost Model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각국의 원가계산 모델 적용 경험을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
Internet Telephony Tariff and Settlement Issues between Countries	GR TAS-D2-E	○ 국가간 인터넷전화 요금 및 정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차기 SG 3 연구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

2.2 TAS 질의서 회람 결과

TAS 회원국내 사업자간 직접접속에 의한 호와 중계 호의 비율은 65%:35% 정도이며, 권고요율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회람은 참여국이 적어 그 정보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회람의 유효성에 관해 토론하는데 할애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회람은 각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회람의 기간이 짧아 질의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2.3 TAS 원가산정 모델 확장

현재 완전배분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 기반의 TAS 원가산정 모델에 효율성이 보다 강조된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Long-run Incremental Cost)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견에 회원국들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제간 상호접속료 협상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장기증분원가방식의 전산화된 요금산정모형 개발에 대해 그 구현과 실행상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장기증분원가방식 적용시 고려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Model, 주로 공학기반) 방법론과 하향식

(Top=down, 사업자 회계자료 기반) 방법론 중 특히 상향식 방법론에 주목하고 활용도가 높고 비교적 시장적용이 용이한 본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바레인의 경우, 현재 상향식의 공학적 방법론을 적



극 활용하고 있는 한국의 상호접속료 산정 관련 통신규제 정책현황에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교류를 적극 제안하였다.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 역시 현재 ITU-T SG3에서 이동착신료 산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논의되는 현황이므로 선진화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회원국들의 정보통신시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로 관련 시장활성화 제도 등의 기반조성에 정보통신 분야 정책 및 제도 적용 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가 절실한 현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 교류하여 국제간 상호 협력체계를 돈독히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이동착신료 산정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함께 이동착신료 산정 관련 라포치 그룹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에게 참여를 촉구하였다.

현재 상당수의 TAS 회원국의 이동착신료와 유선착신료의 차이가 40%까지 나는 등 매우 커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ITU-T SG3 회의 등에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역시, 통신시장의 발전상황에 따라 유·무선간 착신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및 시장 상황의 개선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시정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5 IP망

TAS-D2-E(한국기고서)에서 인터넷 전화와 관련하여 TAS 지역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ITSP(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이의 접속요금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Skype 등의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PC to PC VOIP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TAS 회원국의 IP망 사용 관련 기초현황 파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정보 및 IP망 범위, 정의 등에 대한 개괄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기본 정보가 수집된 뒤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2.6 국제간 인터넷 접속

본 사안에 대한 SG3에서의 활동을 살펴보고, TAS에서 국제간 인터넷 접속요금에 대한 협상 관련 주요 요소의 하나로 트래픽 흐름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몇몇 국가는 트래픽을 고려하여 정산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의 통신사업자인 KDDI는 이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비싼 국제 백본망 사용료와 정보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국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이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7 기타 논의

최근 회람된 Call-back 회원국의 논의가 있었으나, 규제에 대해 각 나라의 입장이 다양하여 지속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ITU-T SG3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 현실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적용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

게 하였다.

2.8 차기 연구과제

TAS 그룹 회원들의 제안에 의해 향후 연구항목으로 이동착신료 산정, IP 트래픽 측정, 지역별 규제제도가 정산요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과제가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ITU-T SG3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TU-T SG3, APT, TAS 등 지역그룹 간 합동회의의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회의 참석소감 및 기타

이번 TAS 회의는 향후 4년간 논의될 주제와 논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TAS 원가모델

확장, IP망 관련 이슈, 국제간 인터넷 접속 등이 주요한 이슈였으며, 특히, TAS 원가모델 확장과 관련한 이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제하여 참여국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향후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활용하여 통신 접속요금 산정 제도를 적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SG 3 연구반에서 진행중인 일본, 말레이시아 주축의 이동착신료 산정 방법론 마련시, 유선/무선에 모두 장기증분방식을 도입 중인 한국의 정보를 적극 개진하여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TAS 회의는 회원국 대표 뿐 아니라 회원국의 통신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국 혹은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한국 역시 국내 사업자 등 유관기관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그룹의 역할증진을 위해 요금 및 과금 관련 국제표준을 총괄하고 있는 ITU-T SG3 의장단과 TAS Group 의장단 간에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그룹간 합동 회의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의견개진이 가능한 장을 여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TA**